

사업주체	임기구분	추진구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이행률	이행구분
자체	임기 내	지속	'22~'26	비예산	100%	이행완료

공약실천계획

정책목표	민간발전사업자의 송도 LNG기지 연료전지사업 추진 관련 주민 의견 수렴 ·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 의견 통보																				
정책개요	○ 사업대상 : 송도그린에너지(주) 연료전지(설비용량 100MW) 발전소 ○ 사업위치 : 연수구 송도동 375, 376번지 일대 ○ 사업기간 : 수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내용 :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유희부지와 BOG를 활용한 연료전지 사업 ○ 사업주체 : 송도그린에너지(주)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구성 특수목적법인(SPC)																				
추진일정	세부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어반가든 교육사업																				
소요예산 (백만원)	총합	2022				2023				2024				2025				2026			
	비예산																				
변경사항	해당없음																				

추진 실적

연차별 계획대비 주요 실적

공약이행 확인지표	2024.3월 기준 이행 현황		2022	2023	2024	2025	2026
송도그레이 수소 연료전지사업 현안해소	목표	100%	100%				
			동향파악 및 지속추구				
	실적	100%	60%	100%			
			동향파악 지속추구	사업중단			

세부 추진 내용

○ 그동안 추진사항

【 민간발전사업자 진행사항 】

- '18. 08. 발전사업 3자 MOU 체결(한수원,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 '21. 12. 17. 그레이수소 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 신청(산자부)

【 우리 구 추진사항 】

- '21. 12. 30. 산자부, 우리구로 발전사업 심의를 위한 3가지 의견 문의
 - ① 지역 수용성 정도 ② 사전고지 절차의 적정성 ③ 연수구 의견
- '22. 01. 05. ~ 04. 15. 지역주민 의견 수렴
 - ▶ 수렴결과 : 설치반대 의견 대다수 [1차(74%), 2차(73%), 3차 설문(91%)]
 - ▶ 주민단체민원 : 올댓송도 44,000여 명 반대 서명부, 비대위 반대성명서
- '22. 6. 3.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연수구 의견 산자부로 통보

1. 지역의 수용성 정도

가. 전기, 열 수용성 정도 : **낮음**

- 전기와 열은 관내 2곳에서 생산 중으로 한 지역 집중은 과도하다는 의견
- ※ 기존 발전시설 : (주)인천종합에너지, (주)뉴파워

나. 지역주민의 수용성 정도 : **매우 낮음**

- ① '국가 가급 중요시설'인 가연성 LNG저장탱크와 연동된 발전시설에 대한 불안감 팽배
- ② 발전사업자 주도로 구성한 '주민협의체'에 대한 불만
- ③ 발전형식은 그린수소가 아닌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 수소' 방식으로 '공기업의 기후변화 대처 공익성'에 대한 불만

2. 연수구 입장

- LNG탱크와 연동된 시설의 안전성 문제 해결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해소 대책 등이 마련되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함
-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주민안전을 최우선 구정목표로 삼고 있는 **구의 입장에서 설치 반대는 불가피**
-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인천시 입장 】

- 사업 예정지가 연수구 내에 위치함에 따라 위험성 및 환경성 등을 우려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
-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하는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제274차 전기위원회 개최결과(2022.12.9.)
 -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 심의 보류
 - 보류 사유 : 상기 허가심의 건은 관할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역 수용성 제고노력이 필요하며 추후 재심의 필요

⇒ 참여사 입장 변화

(한수원) 수소법 개정으로 한수원의 수소연료전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 중단

(가스공사)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는 소규모만 고려, 동사업의 100MW 규모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선정되기 어려워 사업 중단

※ 연간 수소발전 입찰시장(약200MW) 검토 중이나, 대규모(100MW)의 사업은 미고려(산업부)